

기아차 “전기차 시대 선도” 조직 재충전



고객경험본부, 4개 조직으로 세분화
언택트 차량체험 등 맞춤 정보 제공
원격 지원·주행 데이터 분석 등
고유 서비스 개발...글로벌 고객 관리

기아자동차가 고객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고객 경험 분야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아차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고객경험본부를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편을 통해 새롭게 조직된 기아차 고객경험 본부는 고객이 기아자동차를 경험하는 상황과 접점을 기준으로 업무를 재정의하고 조직 구조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전기차 시대에는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마케팅과 고객채널 서비스로 이원화돼 있던 고객경험본부를 고객의 사용 경험 단계에 따라 고객구매경험사업부, 오너십경험사업부, 브랜드전략실, 고객경험기획실 등 4개의 조직으로 나눴다.
우선 고객이 기아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보다 쉽고 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구매경험 사업부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환경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상현실(VR) 쇼룸 및 언택트 차량체험 기회 확대하는 등 고객 중심의 몰입형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업체들과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너십경험사업부는 기아 브랜드를 소유한 이후 고객이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신속 대응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부서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지원, 주행 데이터 분석과 진단을 통해 고객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불편을 사전에 감지하고 최소화한다. 이밖에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와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무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등 차량 내부에서도 경험 혁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브랜드전략실을 통해 기준을 수립하고 모든 고객 접점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관된 기아 브랜드만의 고유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객경험기획실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 브랜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송호성 사장은 “다가오는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차

량 내에 거주하는 시간, 차를 충전하고 주차를 하는 생활까지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아차는 조직 개편을 통해 고객이 기아자동차와 함께 하는 모든 순간마다 의미 있는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오는 2027년까지 전용 전기

차 모델 7개를 출시하고 국내외 충전 인프라 업체와의 협력을 늘리는 등 전기차 사업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출시를 앞둔 기아차 'CV'에 적용될 예정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쏘울 EV

‘코로나 시국’ 중고차 더 팔렸다

9월까지 296만대...전년비 7.7% ↑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중고차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 발표된 ‘중고차 내수 시장의 특징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업자 개인 등을 합한 중고차 거래량은 총 296만4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만2000대보다 7.7%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차 내수 거래량은 369만5000대로 2018년 377만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누적 거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판매 서비스가 확대되고, 신차 구매 여력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가 나오면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엔카닷컴의 ‘엔카 흡서비스’,

케이카의 ‘내차 사기 흡서비스’ 등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된 영향도 크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했고, 수입차 브랜드는 자체 인증 중고차 판매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의 중고차 시장은 이미 온라인 거래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 중이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미국이 2018년 4023만대에 비해 지난해 4081만대, 중국이 1382만대에서 1492만대, 일본이 695만대에서 699만대로 늘어났다.
양재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고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업 영세성과 사업체계 부족 등을 고려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완성차 기업과 영세업체가 상생 가능한 구제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차박’ 열풍에 대형 SUV 매출 ‘대박’

국내 5개사 올 12만 2025대 팔려
2년새 4배...팰리세이드 인기 견인
자동차에서 숙박을 하는 ‘차박’ 열풍에 국산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연간 판매가 올해 첫 10만대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12만대도 넘어섰다.
21일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픽업트럭을 제외한 대형 SUV 내수 판매는 12만202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형 SUV 연간 판매량 2만8184대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형 SUV의 연간 판매량이 10만대를 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대형 SUV는 2018년 14개 차급 중에서 12위로, 스포츠, 소형 세단에 이어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7만5154대를 판매하며 9위에 올라선 뒤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SUV 시장이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최근 SUV 선호도가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형 SUV가 대형 세단과 미니밴의 대체 수단으로 부상했고, 국내 완성차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신차도 잇달아 출시했기 때문이다 보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출·퇴근과 여행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애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차박 등 자동차 활용이 많아지면서 넓은 공간을 갖춘 대형 SUV의 장점이 부각된 게 사실이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작년 대형 SUV 판매량의 70%에 달하는 5만2299대가 팔린 데 이어 올해도 11월까지 5만8822대가 팔리며 대형 SUV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기아차의 모하비도 지난해 9238대에서 올해 11

월까지 1만8330대로 판매량이 2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 초 출시된 제네시스의 GV80도 3만745대가 팔리면서 국내 대형 SUV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GM의 트레버스, 쌍용차의 올 뉴 렉스턴 등 신규 모델이 추가되며 대형 SUV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 ‘팰리세이드’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우승 기념 30% 할인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2020 CJ대한통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드라이버와 팀의 시즌 종합 우승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타이어프로 홈페이지 온라인몰(www.tirepro.co.kr)에서 이벤트 코너를 통해 엑스타 제품(PS91·PS71·PS31)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체대행서비스

무료 이용, 방문 세차 할인, 모바일 주유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20년 한해 모터스포츠대회 우승을 통해 다시 한번 기술의 명가의 이름을 되찾았고 연간 영업 흑자를 이어감으로써 2021년 경상이익 흑자달성 목표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